

석사학위논문

전국소년체육대회 유도선수의 사용기술이
특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세 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태 균

2003년 8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유도선수의 사용기술과 득점분석

지도교수 이 세 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출자 김 태 균

김태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유도선수의 사용기술과 득점분석

김 태 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세 형

본 연구에서는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남자중등부, 여자 중등부에 참가한 선수들의 총 956경기를 대상으로 한 전체 사용기술과 득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체사용기술 956경기 중 메치기기술이 532경기(55.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발기술이 254경기(26.6%),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 굳히기가 196경기(20.5%), 메치기의 손기술이 162경기(16.9%), 메치기의 허리기술이 116경기(12.1%)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사용기술에서는 2000년 대회에서는 굳히기가 85경기(26.7%), 기타(기권, 반칙, 실격) 72경기(22.6%), 발기술 68경기(21.4%)순으로 2001년에는 발기술이 97경기(30.3%), 굳히기 70경기(21.9%) 2001년에는 기타(기권, 반칙, 실격) 90경기(28.3%), 발기술 89경기(28.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득점을 분석한 결과 한판이 609경기(63.3%), 유효가 112경기(11.6%), 절반이 68경기(7.1%), 기타가 66경기(6.9%), 효과가 54경기(5.6%), 판정이 54경기(5.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도별 득점에 대한 분포는 한판득점이 2000년 대회에서는 186경기(58.5%), 유효 40경기(12.6%), 2001년에는 208경기(65.0%), 유효 31경기(9.7%), 2002년 213경기(67.0%), 유효 40경기(12.6%)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3개년간의 대회를 종합해 볼 때 출전선수 공통적으로 승부에 사용된 기술과 득점에서는 경량급에서 발기술, 손기술 순으로 중(中), 중(重)량급에서는 허리기술과 누르기 순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문제	3
4.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4
1. 한국유도의 사적 고찰	4
1) 한국유도의 역사	4
2) 해방 이전의 발달사	6
3) 해방 이후의 발달사	10
2. 기술의 개념	10
3. 기술의 구분	11
1) 메치기 기술	12
2) 굳히기기술	13
3) 급소짜르기	14
4. 기술의 특점과 반칙의 종류	16
1) 특 점	16
2) 반칙(대한유도회 심판규정)	16
5. 선행연구	18

Ⅲ. 연구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기간	21
3. 조사도구	21
4. 조사 방법	22
Ⅳ. 연구결과	23
1. 전체 기술분석	23
1)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기술의 교차분석	24
2)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기술의 교차분석	29
3) 제31회 전국소년체전 학력에 따른 체급의 기술분석	34
2. 전체 득점분석	38
1) 제 29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40
2) 제 30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43
3) 제 31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47
Ⅴ. 논 의	52
Ⅵ. 결론 및 제언	54
1. 결 론	54
2. 제 언	55
참고문헌	56
[Abstract]	58

- 표 차 례 -

표 1. 연구대상 경기의 특성	20
표 2. 유도기술의 분류	21
표 3. 체급별 중량	22
표 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25
표 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26
표 6.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28
표 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29
표 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31
표 9.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32
표 1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기술의 교차분석	34
표 1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36
표 12.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37
표 13.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40
표 1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41
표 1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42
표 16.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44
표 1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45
표 1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46
표 19.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48
표 2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49
표 2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50

- 그 립 차 례 -

그림 1. 전체 사용기술 분석	23
그림 2. 사용기술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24
그림 3.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	25
그림 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	27
그림 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	28
그림 6.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	30
그림 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	31
그림 8. 제30회 전국소녀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	33
그림 9.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	34
그림 1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	36
그림 1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	37
그림 12. 전체 사용특점 분석	39
그림 13. 사용특점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39
그림 1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40
그림 1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41
그림 16.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43
그림 1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44
그림 1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45
그림 19.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47
그림 2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48
그림 2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49
그림 22.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도의 기원은 멀리 원시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할 것이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의식주를 얻고 혹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맨손 맨주먹으로 싸워 왔으며, 이러한 수단들이 체계를 이루어 현대적 의미의 각종 격투기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일본어로 “부드러운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도는 원래 일본 사무라이들이 맨손으로 벌이는 격투기인 유술(jujitsu)에서 비롯된 운동이다. 유도는 이런 격투로부터 그 기원이 출발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유도라 부르는 스포츠는 일본의 嘉納治五郎가 체계화 한 것이며, 메이지 15년에 講道館을 세워 청소년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김정행 외, 1997).

유도는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발생되어 격투형식의 무술로 전승되어 오다가 1882년 일본의 嘉納治五郎(1860~1938)에 의해서 현대의 스포츠로 체계화되었다.

嘉納治五郎(1860~1938)는 여러 종류의 유술을 하여 과학적 기초위에 새로운 체련법 수심법 승부법을 정하여 유도라 칭하고 1882년 강도관을 세워 교수한 것이 지금 행하고있는 유도의 시초이다(이제황, 1976).

1952년 국제유도연맹(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I. J. F)이 결성된 이후 1956년 제1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1960년 제18회 일본 동경올림픽대회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달되어 급진적인 보급으로 발전을 하게되어 오늘날에는 160여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유도의 국제화는 과거 유도의 창시 때 하였던 방법과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발생하여 단순한 기술 연마 차원을 넘어 본래 목적인 체육(physical growth), 승부(challenge), 수심(moral training)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시행하던 것이 승부중심의 스포츠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유도의 경기방법, 운동기술 향상, 선수양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천되어 가고 있는 유도경기의 과정 속에서 지나친 승부중심에

대한 유도의 본질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대한유도회, 1997: 51).

오늘날 유도경기는 인간의 생리적 능력으로 승패를 겨루던 경기를 뛰어넘어 고도로 발달한 과학이 접목되어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이적인 기술이 발달을 보이고 있다(이제황, 1976). 오늘날 유도는 일본 중심의 교육적 유도에서 국제적으로 스포츠화 된 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와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도는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 최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동안 메달 육성종목으로서 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운동기술과 우수선수의 양성에 주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기력 향상 중심의 연구(김승철, 하형주, 1995; 하형주, 김병현, 1996; 김관현, 1999; 최명수, 2000; 최관용, 2000)에 중심을 맞추어져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경호, 1999: 114-115).

이러한 획기적인 결과 한국 유도의 위상은 높아지기 시작하여 '88 Olympic에서의 종합우승 등 '92 바르셀로나 Olympic, '99프랑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용인대학교 유도학과, 1999).

우리 제주 역시 '88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첫 금메달이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 매년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전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선수가 유도경기에서 3연패를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제29회, 30회, 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서 각 체급별로 각종기술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초 중학교 시기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분석된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앞으로 선수를 지도 육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갖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유도선수들이 사용된 기술과 득점을 연도별, 체급별간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여 훈련지도에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제시하고 유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전체적인 사용기술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2. 연도별 유도경기 사용기술은 차이를 보이는가?
3. 전체적인 득점분포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4. 연도별 유도경기 득점분포는 차이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급을 분류하였다.

- 1) 경(輕)량급 : 초등부(-35kg, -43kg), 여중부(-42kg, -45kg, 48kg),
남중부(-48kg, -51kg, -55kg)
- 2) 중(中)량급 : 초등부(-53kg, -65kg), 여중부(-52kg, -57kg, -63kg),
남중부(-60kg, -66kg, -73kg)
- 3) 중(重)량급 : 초등부(+ 65kg), 여중부(-70kg, + 70kg),
남중부(-81kg, -90kg, + 90kg)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유도의 사적 고찰

유도는 손과 발로서 공격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술이다. 유도의 기술과 이론은 본으로 조직되어 있고 본의 수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것이다(김정행, 김영환, 1987: 11). 이러한 유도는 이미 1400여년 전 '柔術'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무기를 갖지 않고 맨손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유술의 이름은 타인 유술에 사용하는 무기나 방법에 기인해서 불리어진 것이 아니고 상극에 포함되어 정신의 원리에 의해서 불리어졌다. 즉 유술은 '柔能制剛'의 원리로서 '유'는 능히 '강'을 제압한다는 유의 정신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해도 좋을 것이다(강충식, 1978: 13).

이와 같이 유도는 유술의 비법이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1882년 일본의 嘉納治五郎(1860~1938)에 의해 講道館 유도가 탄생되면서부터이다. 근대스포츠로 바뀐 유도가 1920년경에 “정력선용, 자타공영”이라는 유도철학을 완성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보급 발전과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1951년 국제유도연맹이 조직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로 등장하게 되었다(김도준, 안병근, 1991: 20).

1) 한국유도의 역사

격기의 한 부분인 유도는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는 문헌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유도와 같은 격투기는 인간의 생존 상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음식을 얻기 위하여 강한 힘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등 자기방어 및 공격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적 환경에 따라 점차 발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유도는 동양적인 환경에서 불교문화의 전래와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할 수 있다.

한국유도의 기원이 한국의 유술인 수박에 있다고 주장하는 설과 유술이란 용어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유도의 기원을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유도의 기원이 한국의 유술인 수박에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서 오늘날의 유도가 유술로 발달한 것은 고려 중엽, 즉 고려 15대 숙종(1097-1106)때에 이르러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정재(呈才)로 나타나 음악과 함께 장려되었다고 한다. 이 때 유술은 수박(手搏) 또는 각저(角觝)라고 불렸다. 왕이 이를 좋아하여 상춘정(賞春亭)이나 마암(馬岩)에 갈 때는 수박희(手搏戲)를 시범케 했다. 이러한 유술에 대하여 안자산(1974: 74-75)은 「조선무사영웅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유술의 시초는 고려 중기 때부터이다. 제15대 숙종왕 때부터 백희(百戲)가 성품함에 당하여 유술이 일종의 정재(呈才)로 나타나 음악과 병진한 것이다. 충혜왕 때에는 점차 유도의 유행이 대흥하여 이때는 이를 수박 혹은 권법이라 하였으며 왕이 상춘정이나 마암 등지에 항상 거동하여 수박희(手搏戲)를 전문으로 개설하였다.

인종(1123-1146)때에는 무인의 세력이 커지면서 정중부는 이를 유흥의 한 과목으로 삼는 동시에 군인들의 일상무예로 장려하였다(김도준, 안병근, 1991: 2-3). 이렇게 하여 유술은 권박(拳搏), 각저(角觝), 각희(角戲), 상박(相搏)이란 이름으로 기록하였으나, 후일에는 기술적인 진전에 따라 유술과 씨름이 크게 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씨름은 오직 육박으로써 각투(角鬪)에 불과한 것이요, 유술은 인체 근육의 혈맥을 박동하여 죽이기도 하고 어지럽게도 하며 또는 병어리가 되기도 하는 3법이 있었다고 무예도보통지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김종달 외 2인, 1998: 101).

또한 고려에서는 연중행사로 매년 5월에 큰 경기를 열었다. 그 당시 유술에는 25법이 있었고, 그밖에 10여종의 비법이 있었다. 급소 지르기 등 25법은 신법(身法), 수법(手法) 및 각법(角法)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비법(秘法)은 비전(秘傳)으로 구전심수(口傳心受)되어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이 법들이 일본으로 이식된 것 같다(이제황, 1976: 20). 그 후 강도관 유도의 창설자

인 嘉納治五郎(1860~1938)는 전해 내려온 유술의 각 유파 가운데 좋은 것과 위험한 것을 선별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첨가하여 정신수양과 체육을 목적으로 오늘의 유도를 완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유도인들 중에서 유도의 한국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술과 관련한 안자산(1974)과 이제황(1976)의 견해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술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즉 고종 실록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다.

왕이 일본에서 돌아온 대사 완순군, 이재완을 불러 물어 보시며 재완이 말하길 신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일본국에 가서 국서를 봉정하고 이번 11일에 동경으로부터 돌아와 오늘 입성하였습니다. 재완이 말하기를 그 학교(일본)를 보니 여자도 체조를 하고 유술 격검(검술)의 기(技)가 있더이다(고종실록, 광무 10년 2월).

고종 때 처음 유술이란 용어가 보인다(나현성, 1976). 이 용어가 당시의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인지, 혹은 이재완이 일본어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용어가 고종 이전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이 한국어로써 아직 정착되거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자산(1974)과 이제황(1976)의 주장처럼 유술과 각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것, 즉 19세기 이전에 유술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 한 모순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해방 이전의 발달사

근대화된 강도관 유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어 경기로서 실시된 것은 1909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유도부의 활동이 한국인이 처음으로 개설한 사설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는 장사 백 명을 육성하라는 이상재 선생의 제창으로 유도반을 창설하고 이를 실시했는데 지도는 무관학교 출신인

유근수와 나수영이었다. 기독교청년회는 우리나라 민족체육의 요람지였으며, 유도도 예외는 아니었다(김도준, 안병근, 1991: 22). 1908년 9월 4일자 '황성신문'에서 무관학교장 이두희와 학무국장 윤치오가 교육계 청년과 일반 국민을 위한 체육부를 조직하고 군인구락부에서 습사(習射), 승마, 격검, 유술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한국인의 유도수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한편 1906년 일본인 우찌다(内田)가 지도하던 도장이 있었다고 주장(이학래, 1989)하기도 하나 1904년에 무관학교에서 보직을 받은 전영헌(全永憲)이 무관학교 생도들에게 유도를 지도했다는 주장도 있다(최종삼, 최용배, 1999: 69). 이 연구에서는 해방 이전의 발달사를 무단통치기와 문화통치기로 구분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1) 무단통치기(1910-1919)의 한국유도

한일합방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무단통치라 불리는 일제통치는 군정체제로서 헌병이 경찰관을 겸해 행정·사법권으로 즉결재판까지 행사하며 무단통치의 핵심조직이 되었다. 무단통치기의 일제는 헌병경찰 통치를 하면서 식민지 교육의 기본방침인 '황국신민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것은 조선교육령에 나타나 있다.

1905년 11월에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일제의 무력적 강압으로 체결되어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같은 해 12월에 설치된 통감부에 의해 한일합방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때를 틈타 강도관 유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도관의 유도는 유술이라는 이름으로 정식과목으로 채택된다. 이후에도 더욱 발전하여 1911년에 일본의 중학교에 "체조의 격검(검술) 유술은 부과할 수 있음(수의과)"이라 하여 유술이란 이름으로 정식과목으로 채택된다. 국내에서는 1914년에 이르러서야 각종학교의 체조과목으로 선택되었다. 1910년 합방 후 1914년 학교체조교수요목이 제정되어, 이때 처음으로 유도를 체조과의 과외활동 교재로 채택되었다. 이 당시 체조과의 교재로는 체조, 교련, 유희 및 경기, 검도 및 유도인데, 이때 교수상의 유의점으로는 예절을 중시 여기고 헛되게 승패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유도부가 설치된 것은 1910년 경성중학교가 최초이다. 이 당시의 유도는 여가를 이용한 학생들이 다다미 50-60장 정도를 깔고 검도장의 일부를 빌어 경성중학교의 교우회 운동부의 사업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후 경성중학교에서 유도부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4월에 무덕회로부터 사범들이 들어오면서이다. 그 뒤 1913년 2월부터는 학생들의 훈육상 중요성 인식하여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정과로 채택되었다. 1913년에서 1914년에 걸쳐 경성중학교에서 유도를 수련한 사람은 전교생 500명중 300명이었다고 한다(이학래, 1989: 74).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그것은 경성중학교 이전 1909년에 이미 봉오(鳳鳴) 학교에서 도장을 개설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명백하게 나타난 기록은 없고, 한국인의 유도사범들에 의해 YMCA에 이미 유도반이 형성된 시기라는 주장도 있다(이학래, 1989: 75).

일본의 강도관 유도가 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 저변에 흐르는 사상은 한국과 중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강도관 유도장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비록 강도관 유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청소년을 유도로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20세기 초에 병식체조를 학교교육에서 강조한 사실이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흐르는 사상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최종삼, 최용배, 1999: 72).

(2) 문화통치기(1919-1937)의 한국유도

헌병경찰에 의한 식민지 강압정치가 한민족의 저항으로 무단통치에서 회유조 정책의 하나인 문화통치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 정책의 기본방침은 바뀐 것이 아니라 '동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고등식민지정책을 썼던 것이다. 문화통치의 기본방침은 일본의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더욱 강화하고 민족적 모순의 격화를 회유하면서, 성장하고 있던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반제 투쟁과 민족주의자의 투쟁을 철저히 강압하는 등 민족의 분열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방법의 시기이다.

초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보급되었던 학교유도가 1927년부터는 국방체육의 수

단으로 유도를 전환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21년 4월 18일 자령 제113호로 총독부 사범학교 관제로 공포하고 19일 총독부령 제67호, 2월 23일 총독부령 제17호로 사범학교규정으로 사범학교에서 행할 체조과의 교재에 대하여는 체조는 체조, 교련 및 유희를 교수함이 가하고 또 남생도에 있어서는 검도와 유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현성, 1975). 그 이후 1927년에 개정된 교수요목에서도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유도를 강조하고 국방체육으로의 전환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단증을 수여한 것은 1922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22년 6월 25일 조선무도관 관계자들이 7명의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게 유도 1단이라는 자격을 준 것이다. 또한 1924년 1월 31일에는 유도에 수양이 있고 급의 형식을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해 강무관(講武館)에서 정급시험이 있었다. 1926년 10월 16일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된 유도연무대회에 나타난 유도의 형태는 낙법, 난포(亂捕), 격투 대 유도시험, 투형(投形), 관절법, 1인 대 10인 시험, 심외운동 소봉, 아령, 인도봉(印度棒) 등이었다. 1928년에는 유도의 용어와 술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포하였다. 또한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조선단체유도대회를 개최하여 유도의 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선연무관이 1932년 개관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도의 다양한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이 있은 후 일본인들에 의해 문화통치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교육정책 역시 변화되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 학생유도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인들도 사설도장과 각종대회를 유치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설도장은 초기 한국유도의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의 민족주의계열과 친일세력이었던 군·경의 유도인들과는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어 왔다. 이 당시 각종신문에서 기사화된 유도인들 중 한국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일본에 대항하려는 간접적 승부의욕이 강한 시기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강도관의 승급 및 승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승단과 승급, 그리고 여성유도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나 경기가 개최되는 등 국내 유도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최종삼, 최용배, 2000: 67).

3) 해방 이후의 발달사

1945년 10월 재경 유도 유단자 100여명이 모여 조선유도연맹을 결성하고 일제 하에서 분산되었던 유도인의 역량을 결속하고 조국 재건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유도의 재건은 유도에 내재되어 있는 일본적인 것을 불식하고 이념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도연맹에서는 유도용어를 우리말로 새로이 재정하는 등 지도자의 강습을 통해 한국유도의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였다. 1953년에는 한국유도의 앞날을 이어나갈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과정의 대한유도학교가 설립되었다. 1955년에는 유도 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하여 약 3개월간 순회 지도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동시에 한국유도의 이미지를 심고 돌아왔다. 이 사절단이 한국유도사상 최초의 국제 무대진출인 것이다. 그리고 국제무대로 시야를 넓혀 1958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권용우, 이석도 선수 파견을 시발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대회에 많은 선수가 출전하여 한국유도를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있다(김정행, 1986: 24).

이렇게 발전되어온 유도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한국유도는 유도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하여 기존 국가대표들의 세대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에만 노력한 결과, 엘리트스포츠에서 대중스포츠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래 유도가 교육적 목적으로 시작된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대중스포츠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크다. 따라서 유도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2. 기술의 개념

유도는 무기를 갖지 않고 맨손으로 상대와 서로 맞잡고 메치고, 누르고, 조르

며, 꺾기도 하는 공격·방어의 연습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련하는 격투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보는 유도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론과 실제에 있어 부드러움(柔)이 반드시 강한 것(剛)을 제압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움(柔)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강한 것(剛)을 제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힘으로써 직접 힘에 대항하지 않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유도에 있어서 힘, 즉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약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제압하는 수단을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심신의 힘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유도의 공격과 방어 기술적 특성은 약한 체력으로 강한 상대를 메쳐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도는 공격과 방어의 부단한 수련 과정을 통하여 체육(체력), 정신수양(정신력), 처세방법을 겸한 인간완성의 길(道)이기도 하다.

유도의 기술이란 정해진 행동동작의 목적을 갖고 신체를 구사하는 수단인 동시에 경기적인 행위이다. 유도경기는 몸의 유연성과 합리적 기술이 포함되면 능히 강한 자를 제압한다. 유능제강의 원리를 중시하여 상대방의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진행되므로 기본기술 만으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기술 및 변칙적인 기술 등의 기술분석이 필요하다.

3. 기술의 구분

유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기본동작을 올바르게 익힌 다음에 자유연습(경기)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것은 곧 기초공사를 견실하게 해야만 높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원리와 같다. 기초체력과 유도의 기본동작을 소홀히 함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곧 기술의 향상에 한계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선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선의 현장은 선수의 시급한 양성과 경기의 결과에만 집착하여 처음부터 경기위주의 연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유도의 기본기가 단조롭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선수나 지도자들은 그 연습들을 간단히 끝내거나 심지어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유도의 기술은 기본동작의 연결이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연습을 하여 하나의 동작이라도 정확하게 습득되어야 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만을, 그것도 단기간에 익히려고 하면 기초체력과 기본 동작의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잔기술에만 흥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연습방법으로는 경기력이 우수한 유도선수를 배양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유도의 기술은 크게 메치기, 굳히기, 급소 지르기로 나뉘어지며 현재 경기(競技)에서는 메치기와 굳히기만을 사용(使用)하고 급소 지르기는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위험(危險)에 처있을 때를 대비한 호신술(護身術)로서 사용(使用)을 하고 있다.

1) 메치기 기술

초창기(1882년)의 유도는 유술에 포함된 많은 종류의 메치기 기술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 후 약 10년의 사이에 메치기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크게 발전하였다. 1887년 이후부터는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 바로 누우며 메치기기술, 모로 누우며 메치기기술로 나누어진 메치기 기술의 내용이 충실하여 졌으며, 1895년에는 메치기 기술 지도의 주요한 항목인 5교의 기술 42종목이 제정되었다.

유도의 5교(五敎)란 유도기술을 배우는 순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엮어치기를 낙법이 끝난 뒤에 바로 가르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먼저 발기술을 배우게 되면 팔이나 몸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게 되므로 용이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기술에 능숙하지 못하여 기술의 연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기술의 순서를 명심하여 가르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00년에 제정된 유도자유연습 경기규정에는 메치기기술 우선을 명확히 함으로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메치기기술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유도자유연습

경기규정을 보면 규정의 12조에는 초단이하는 메치기 7-8활, 굳히기 2-3활의 비율로 초단이상은 메치기 6-7활, 굳히기 3-4활 비율로 연습함이 적당하다. 따라서 경기할 때는 한 쪽이 공평한 방법에 의하지 않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메치기 굳히기를 피하여고 할 경우에는 심판이 주의를 주고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도 되어 있다.

가노지고로는 1919년 강도관 추계홍백경기에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가 나쁘고, 멋있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술이 퇴보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1921년에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유도는 옛날 유술의 장점을 취사하고 나의 기술연구를 가미하여 만든 것으로 유술과 비교하여 상당히 개조되어 세상에 발표된 것만은 사실이나 내가 본래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고 경고하였다. 새로운 5교의 기술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기술은 버리고 보다 이상적인 자유연습방법과 지도 방법을 합친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이다.

메치기는 메치는 자세(姿勢)에 따라서 선 기술과 누우며 메치기 기술로 나누어지며 선 기술은 메치는 사람이 선 자세로 메치는 것을, 누우며 메치기 기술은 메치는 사람이 먼저 누우면서 상대를 메치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선 기술은 메치는 사람의 신체(身體)의 주가 되는 부분(部分)으로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누우며 메치기는 눕는 방향(方向)에 따라 바로 누우며 메치기기술과 모로 누우며 메치기기술로 나누어진다.

- ① 손기술 : 엽어치기, 빗당겨치기, 띄어치기, 어깨로메치기 등
- ② 허리기술 : 허리후리기, 허리채기, 허리껴치기, 허리뒤기 등
- ③ 발기술 : 모두걸기, 발목받치기, 안다리후리기, 허벅다리걸기, 밧다리후리기 등
- ④ 바로누우며메치기기술 : 배대뒤치기, 바로누우면서메치기, 안오금뛰기 등
- ⑤ 모로누우며메치기기술 : 모로띄기, 모로돌리기, 모로걸기

2) 굳히기기술

굳히기의 발달은 메치기 우선 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메치기에 비해 발전속

도가 늦어졌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방침이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유술과 대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메치기기술은 연구강화를 위해 굳히기 기술의 연구에까지 그 힘이 미치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1889년부터 1899년 무덕회 유술경기 제정이전까지는 경기나 연습에서 많이 사용된 조르기는 십자 조르기, 역십자조르기, 안아조르기, 주먹조르기, 맨손조르기, 외십자조르기, 몸통조르기 등이며 꺾기로는 손목, 발목 등을 꺾는 기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기술인 목, 손목, 발목, 무릎 등의 꺾기와 몸통조르기가 실시되고 있다.

1895년이래 교토에서 무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유도선수들이 다른 유파의 선수들과 대전할 때 굳히기에서 고전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누운 기술에 관심이 높아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굳히기기술의 향상을 불러왔다. 1899년에 제정된 무덕회 유술경기 심판규정과 1900년에 제정된 유도자유연습 경기 심판규정에 의해 발, 손가락, 손목, 발목 꺾기가 금지되었다. 아울러 몸통조르기, 목꺾기, 다리꺾기 등 역시 금지되었다.

굳히기는 누르기, 조르기, 꺾기 기술로 나누어지며 누르기는 상대(相對)의 등을 매트(床)에 닿게 하고 위에서 바로 눌러 제압(制壓)하는 기술이며, 조르기는 상대의 목을 팔 또는 다리를 이용(利用)하여 조르는 기술이며, 꺾기는 상대의 팔(手腕)을 비틀거나 꺾어서 제압(制壓)하는 기술이다.

- ① 누르기 : 결누르기, 어깨누르기, 위누르기, 가로누르기, 위고쳐누르기, 삼각누르기
- ② 조르기 : 십자조르기, 맨손조르기, 안아조르기, 죽지걸어조르기, 역십자조르기, 외깃조르기
- ③ 꺾기 : 팔엷어비틀기, 팔가로누워꺾기, 어깨대팔꿈치꺾기

3) 급소찌르기

유술에 있어서 중시되었던 급소지르기는 메치기, 굳히기와 같이 행하여 졌다. 초기의 급소지르기 해설은 “사지(四肢), 머리의 일부로 상대의 전신 중에 해를 받기 쉬운 부분을 찌르거나, 차거나, 때리거나 하여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기절

시키거나, 아주 죽여 버리거나 하는 것이다. 급소지르기의 방법은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주먹으로 상대의 양 눈 사이를 치거나, 가슴을 치거나, 흉골(胸骨)의 밑을 치거나, 발끝으로 고환을 차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등이었다.

가노지고로는 메치기·굳히기와 나란히 유도기술의 하나로 급소지르기를 확립시켰다. 이 기술은 대인적 폭력을 막고, 자신의 몸을 지키며, 생활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기술로써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연습은 하지 않고 본의 형식으로 연습을 하였다.

본(本)은 자유연습 사이에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문장을 가르치는 경우에 문법의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본과 동시에 자유연습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입문자가 많아지면서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게 되자 자유연습과 본의 연습을 분리하여 지도하게 되었다. 당시의 자유연습 방법은 스포츠가 갖는 목표인 체육-신체를 단련하는 것, 승부를 갖는 것, 수심(修心)-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란 지도방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유연습은 승부에 즉각 활용 할 수 있는 몸쓰기와 기술을 습득하고 좌우로 많은 기술을 구사하여 신체를 단련, 나아가서는 지덕(知德)을 닦고 수심(修心)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자연체로 가볍게 자유자재로, 휴식 없는 공방의 연습방법이 기술의 강화를 위하여 메치기 기술을 먼저 연습하고 굳히기를 여기에 가미하여 서서하거나 누워서 하더라도 완벽을 기하였다.

자유연습에 사용된 기술은 메치기와 굳히기로 제한되었다. 결국 급소지르기는 자연히 퇴보하고 말았으며 오늘날에는 호신술이라는 이름으로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인적 폭력을 막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의도적인 소신의 기술과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안전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도의 무술적인 면의 신장이며 급소 지르기의 발전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급소 지르기는 주로 손 또는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며 상대의 급소(急所: 비교적 치명적인 부분)를 공격(攻撃)하여 제압(制壓)하는 기술(技術)이다. 특히, 이 기술은 상대를 병어리로 만들거나 죽게 할 수도 있는 위험(危險)한 기술이므로 경기(競技)에서는 사용(使用)을 금지(禁止)하고 있다.

4. 기술의 득점과 반칙의 종류

1) 득 점

- ① 한판 : 기술을 걸거나 되치기 해서 상당한 전력과 속도로 등 전부가 자리에 닿도록 반듯하게 매쳤을 때, 누르기 25초 이상을 눌렀을 때, 또한 조르거나 꺾기에 걸린 상대가 항복 또는 이와 비슷한 신호를 보낼 때
- ② 절반 : 걸은 기술이 완전히 성공되지 못해서 그 결과가 한판에 미치지 못했을 때, 또는 누르기 20초- 25초 미만일 때
- ③ 유효 : 걸은 기술이 부분적으로 성공되어 그 결과 등이 자리에 닿은 상태, 기세, 전력의 3요소 중 어느 것이나 절반에 약간 못 미칠 때 또는 누르기 15초- 20초 미만일 때
- ④ 효과 : 걸은 기술이 성공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의 탄력으로 상대의 허벅다리, 엉덩이, 옆구리가 자리에 닿도록 매쳐서 유효득점에 약간 미치지 못할 때, 또는 누르기 10초- 15초 미만일 때



2) 반칙(대한유도회 심판규정)

- ① 지도
 - 의식적으로 경기 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 일
 - 선 자세에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 선 자세에서 한손 또는 두손으로 도복 아래 자락이나 띠를 계속 잡거나 두손으로 상대의 목깃 소매 같은 쪽 깃 한쪽 소매를 잡거나 위장공격을 할 때
 - 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어 잡는 일
 - 선 자세에서 한손 또는 두손을 상대 손에 각지끼고 계속 있는일
 -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소란하게 하는 일 또는 주심의 허락없이 띠나 바지 끈을 풀거나 고쳐매는 일
 - 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감는 일

- 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② 주의

- 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두 다리로 껴서 가위 조르기를 하는 일
-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이나 팔을 띠려고 무릎이나 발로 차는 일
- 상대의 띠나 목깃 또는 앞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 일
-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띠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찌르는 일
- 선 자세에서 장외에서 걸기 시작한 기술을 계속 시도하거나 공격하면서 장외로 나가는 일

③ 경고

- 고의적으로 장외로 나가거나 또는 고의로 상대를 장외로 밀어내는 일
-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 다리를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
- 팔꿈치 관절 이외를 꺾는 일
- 상대의 목이나 뼈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는 일
-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자리에 짓짚는 일
- 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일
- 장외에서 기술을 거는 일
-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
- 경기중 필요없는 소리나 동작으로 상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
- 겨드랑이 대고 팔 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④ 반칙패

- 허벅다리 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이 앞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 일
- 상대가 등뒤에서 껴안았거나 제재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을 지니고 있는 일
- 가위 치기 기술로 상대를 넘겼을 때

5. 선행연구

유도기술분석은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연구되었다. 김성수(1981)는 유도시합에서의 기술사용의 빈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체급별로 기술사용빈도를 조사하였고, 경기진행시간별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공률을 연구 발표하였다. 김관현(1982)은 유도경기의 체급별 사용기술에 관한 빈도조사 분석에서 경량급경기는 손기술, 중량급경기에서는 발기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비급에서는 자기의 체중을 최대한 이용한 감아치기 기술이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윤태화(1982)는 유도선수들의 기술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각 기술의 빈도와 득점률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신장에 대한 기술분석은 이재천(1983)의 유도기술의 분석적 연구에서 150-170cm의 신장에서는 손기술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170-189cm의 신장에서는 발기술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1984)는 여자선수들의 득점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여자선수들의 득점분포에 대하여 엽어치기, 결누르기, 밧다리후리기 순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김기생(1984), 김대률(1987), 등은 유도경기내용을 분석하여 체급별 절대신장으로 변인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김기수(1987)는 유도시합에서 발기술이 득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기술이 타기술에 비해 득점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 박신(1988)은 득점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내측변, 외측변, 중앙부 등으로 경기장 부위를 나누어 득점이 자주 일어나는 위치를 설명하였다. 이대우(1988)의 유도기술의 성공률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기술을 구사한다고 서술하였다.

박순진·김도준·김성섭·조은복(2001)은 제 21회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를 중심으로 체급별 사용기술에 관한 연구에서 -81kg급을 제외한 나머지 체급에서 발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경훈(2000)은 각 체급별

사용 기술 빈도의 분포에서는 1999년 국가대표 1차 선발 평가전, 제 10회 성곡컵 국제남자유도대회의 경우, 모두 발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손기술인 업어치기가 가장 많이 구사되었으나, 1999년 국가대표 1차 선발 평가전, 제 10회 성곡컵 국제남자유도대회의 사용 기술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관현(1997)은 각체급별 득점기술을보면, 업어치기, 허벅다리걸기, 안다리걸기, 안뒤축 후리기, 발뒤축걸기 기술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경량급에서는 손기술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량급으로 갈수록 허벅다리걸기, 안다리 후리기, 안뒤축걸기와 같은 발기술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절대신장, 체중, 경기장위치 등으로 변인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유도는 절대신장보다는 신장차이에 따라 기술이 달라지며, 전략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유도선수들에 대한 유도기술의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29회, 제30회, 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대표선수 초등부 5체급, 여중부8체급, 남중부 9체급의 모두 22체급에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956경기의 경기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경기의 특성

내 용		빈 도(경기)	%	누적 %
성 별	남	616	64.4	64.4
	녀	340	35.6	100.0
년 도	2000년	318	33.3	33.3
	2001년	320	33.4	66.7
	2002년	318	33.3	100.0
기 술	굳히기	196	20.5	20.4
	손기술	162	16.9	37.4
	발기술	254	26.6	64.0
	허리기술	116	12.1	76.2
	기타	228	23.8	100.0
체 급	경량급	343	35.9	35.9
	중량급	354	37.0	72.9
	헤비급	257	27.1	100.0
득 점	한판	607	63.5	63.5
	절반	71	7.4	70.9
	유효	111	11.6	82.5
	효과	55	5.8	88.3
	판정	51	5.3	93.6
	기타	61	6.4	100.0
	합계	956	100.0	

2.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일정
1) 연구계획 및 준비	2001. 10. 1. ~ 2001. 12. 31.
2) 참고문헌 및 자료수집	2002. 1. 1. ~ 2002. 5. 31.
3) 자료분석	2002. 6. 1. ~ 2002. 11. 30.
4) 결과처리 및 분석	2002. 11. 1. ~ 2003. 1. 31
5) 논문작성	2003. 2. 1 ~ 2003. 4. 30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서 각 체급별로 경기기록원이 작성한 기록지와 경기장면을 녹화한 Video Tape을 가지고 녹화재생기(SONY SLV-RX, 일본)를 통하여 3명의 전문가들이 굳히기 기술, 메치기 기술(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의 5가지 기술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표 2> 특점은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의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체급별로는 <표 3>과 같이 남자초등 5체급, 남자중등 9체급, 여자중등 8체급으로 총 22체급을 경(輕)량급, 중(中)량급, 중(重)량급의 3체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 유도기술의 분류

	굳히기	메치기			기타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1	누르기	엎어치기	밧다리	허리후리기	기권
2	조르기	들어메치기	허벅다리걸기	감아치기	반칙
3		되치기	안다리	허리채기	실격
4		빗당겨치기	발뒤축	허리튀기	
5		어깨로메치기	모두걸기		
6		다리잡아메치기	떡걸이		
7			안뒤축걸기		

표 3. 체급별 중량

체급	남자초등	남자중등	여자중등
경(輕)량급	35kg미만	48kg미만	42kg미만
	43kg미만	51kg미만	45kg미만
		55kg미만	48kg미만
중(中)량급	53kg미만	60kg미만	52kg미만
	65kg미만	66kg미만	57kg미만
		73kg미만	63kg미만
중(重)량급	65kg이상	81kg미만	70kg미만
		90kg미만	70kg이상
		90kg이상	

4.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서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사용한 기술과 득점을 빈도분석하고, 득점과 사용기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와 각 집단선수를 구분하여 체급별 기술과 득점을 분할표의 X^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전체 기술분석

본 연구는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남자중등부, 여자 중등부에 참가한 선수들의 총 956경기를 대상으로 한 전체사용기술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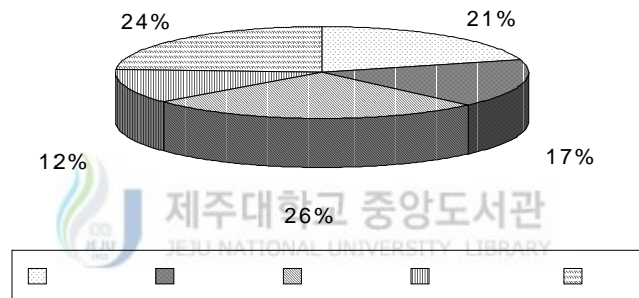


그림 1. 전체기술분석

전체사용기술 956경기 중 메치기기술이 532경기(55.7%)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메치기의 발기술이 254경기(26.6%),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 굳히기가 196경기(20.5%), 메치기의 손기술이 162경기(16.9%), 메치기의 허리기술이 116경기(12.1%)순으로 나타났다.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전체사용기술 318경기 중 굳히기기술이 85경기(26.7%), 손기술이 62경기(19.5%), 발기술이 68경기(21.4%), 허리기술이 31경기(9.7%), 기타가 72경기(22.6%)로 나타났으며,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전체사용기술 320경기 중 굳히기기술이 70경기(21.9%), 손기술이 46경기(14.4%), 발기술이 97경기(30.3%), 허리기술이 41경기(12.8%), 기타가 66경기(20.6%)로 나타났으며,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전체사용기술 318경기 중 굳히기기술이 41경기(12.9%), 손기

술이 54경기(17.0%), 발기술이 89경기(28.0%), 허리기술이 44경기(13.8%), 기타가 90경기(2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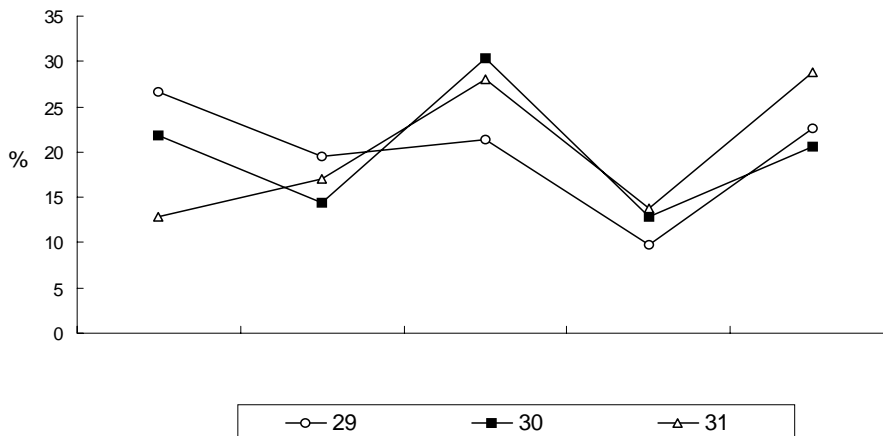


그림 2. 사용기술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189경기(19.6%), 조르기가 7경기(.7%)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89경기(9.3%), 들어메치기가 17경기(1.8%), 되치기가 36경기(3.8%), 빗당겨치기가 7경기(.7%), 어깨로메치기가 4경기(.4%), 다리잡아메치기가 9경기(.9%)이며, 발기술의 밧다리가 63경기(6.6%), 허벅다리걸기가 76경기(7.9%), 안다리가 37경기(3.9%), 발뒤축이 23경기(2.4%), 모두걸기가 8경기(.8%), 떡걸이가 25경기(2.6%), 안뒤축걸기가 22경기(2.3%)이며,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97경기(10.1%), 감아치기가 7경기(.7%), 허리채기가 10경기(1.0%), 허리튀기가 2경기(.2%)이며,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로 나타났다.

1)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기술의 교차분석

(1) 초등부

〈표 4〉는 제29회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73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9경기(28.8%), 손기술이 19경기(26.0%), 발기술이 13경기(17.8%), 허리기술이 6경기(8.2%), 기타가 14경기(19.2%)로 나타났다.

표 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7	7	6	3	7	30
	%	23.3	23.3	20.0	10.0	23.3	100.0
중(中)량급	빈도	10	7	6	2	4	29
	%	34.5	24.1	20.7	6.9	13.8	100.0
중(重)량급	빈도	4	5	1	1	3	14
	%	28.6	35.7	7.1	7.1	21.4	100.0
계	빈도	21	19	13	6	14	73
	%	28.8	26.0	17.8	8.2	19.2	100.0
χ^2							3.319
유의값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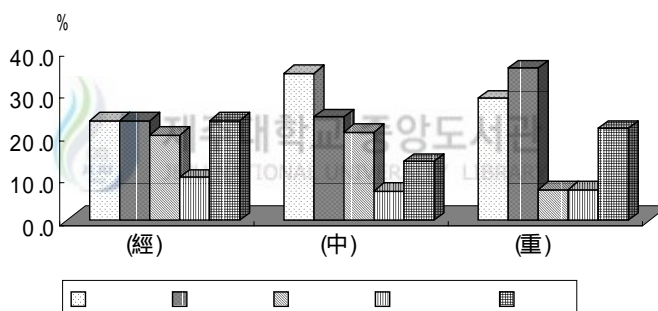


그림 3.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21경기(28.8%), 조르기가 없었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9경기(12.3%), 들어메치기는 없었으며, 되치기가 9경기(12.3%), 빗당겨치기가 1경기(1.4%), 어깨로메치기와 다리잡아메치기는 없었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6경기(8.2%), 허벅다리걸기가 3경기(4.1%), 안다리가 1경기(1.4%), 발뒤축과 모두걸기는 없었으며, 떡걸이가 1경기(1.4%), 안뒤축걸기가 2경기(2.7%)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4경기(5.5%), 감아치기와 허리채기는 없었으며, 허리튀기가 2경기(2.7%), 기타가 14경기(19.2%)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7경기(23.3%), 손기술이 7경기

(23.3%), 발기술이 6경기(20.0%), 허리기술이 3경기(10.0%), 기타가 7경기(23.3%)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10경기(34.5%), 손기술이 7경기(24.1%), 발기술이 6경기(20.7%), 허리기술이 2경기(6.9%), 기타가 4경기(13.8%)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4경기(28.8%), 손기술이 5경기(35.7%), 발기술이 1경기(7.1%), 허리기술이 1기(7.1%), 기타가 3경기(21.4%)로 나타났다.

(2) 남자중등부

〈표 5〉는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130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38경기(29.2%), 손기술이 24경기(18.5%), 발기술이 28경기(21.5%), 허리기술이 10경기(7.7%), 기타가 30경기(23.1%)로 나타났다.

표 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9	12	10		9	40
	%	22.5	30.0	25.0		22.5	100.0
중(中)량급	빈도	13	4	13	6	9	45
	%	28.9	8.9	28.9	13.3	20.0	100.0
중(重)량급	빈도	16	8	5	4	12	45
	%	35.6	17.8	11.1	8.9	26.7	100.0
계	빈도	38	24	28	10	30	130
	%	29.2	18.5	21.5	7.7	23.1	100.0
χ^2							15.454
유의값							.051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36경기(27.7%), 조르기가 2경기(1.5%)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20경기(15.4%), 들어메치기가 2경기(1.5%), 되치기가 2경기(1.5%), 빗당겨치기, 어깨로메치기, 다리잡아메치기는 없었다. 발기

술의 밧다리가 10경기(7.7%), 허벅다리걸기가 3경기(2.3%), 안다리가 9경기(6.9%), 발뒤축은 없었으며, 모두걸기가 1경기(0.8%), 떡걸이가 2경기(1.5%), 안뒤축걸기가 3경기(2.3%)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8경기(6.2%), 감아치기가 1경기(0.8%), 허리채기가 1경기(0.8%),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30경기(2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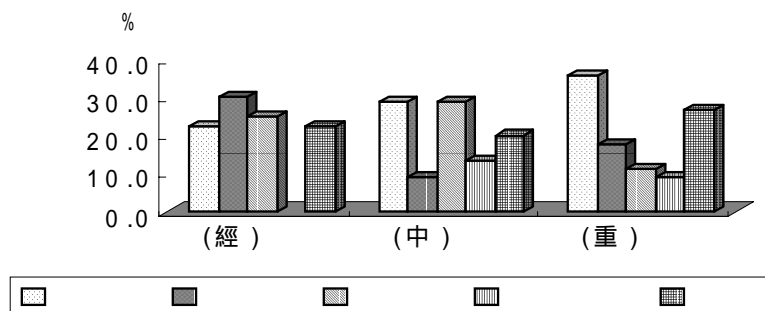


그림 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9경기(22.5%), 손기술이 12경기(30.0%), 발기술이 10경기(25.0%), 허리기술은 없었으며, 기타가 9경기(22.5%)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3경기(28.9%), 손기술이 4경기(8.9%), 발기술이 13경기(18.9%), 허리기술이 6경기(13.3%), 기타가 9경기(20.0%)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16경기(35.6%), 손기술이 8경기(17.8%), 발기술이 5경기(11.1%), 허리기술이 4경기(8.9%), 기타가 12경기(26.7%)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표 6〉은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115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26경기(22.6%), 손기술이 19경기(16.5%), 발기술이 27경기(23.5%), 허리기술이 15경기(13.0%), 기타가 28경기(24.3%)로 나타났다.

표 6.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6	14	12	3	10	45
	%	13.3	31.1	26.7	6.7	22.2	100.0
중(中)량급	빈도	13	3	12	6	10	44
	%	29.5	6.8	27.3	13.6	22.7	100.0
중(重)량급	빈도	7	2	3	6	8	26
	%	26.9	7.7	11.5	23.1	30.8	100.0
계	빈도	26	19	27	15	28	115
	%	22.6	16.5	23.5	13.0	24.3	100.0
χ^2							18.431
유의값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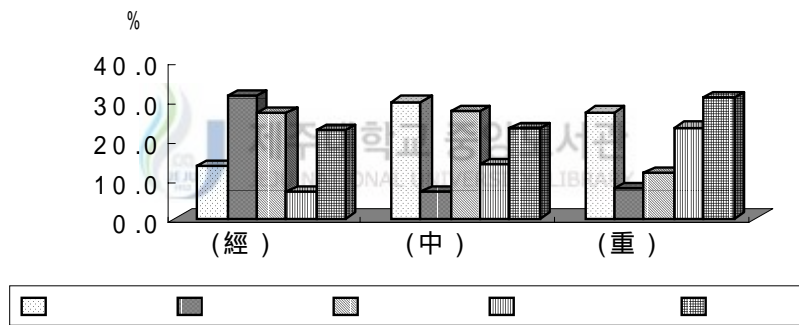


그림 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25경기(21.7%), 조르기가 1경기(.9%)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11경기(9.6%), 들어메치기가 3경기(2.6%), 되치기가 1경기(.9%), 빗당겨치기가 1경기(.9%), 어깨로메치기가 1경기(.9%), 다리 잡아메치기가 1경기(.9%)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5경기(4.3%), 허벅다리걸기가 8경기(7.0%), 안다리가 5경기(4.3%), 발뒤축은 없었으며, 모두걸기가 1경기(.9%), 떡걸이가 6경기(5.2%), 안뒤축걸기가 2경기(1.7%)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가 11경기(9.6%), 감아치기가 4경기(3.5%), 허리채기와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28경기(24.3%)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6경기(13.3%), 손기술이 14경기(31.1%), 발기술이 12경기(26.7%), 허리기술이 3경기(6.7%), 기타가 10경기(22.2%)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3경기(29.5%), 손기술이 3경기(6.8%), 발기술이 12경기(27.3%), 허리기술이 6경기(13.6%), 기타가 10경기(22.7%)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7경기(26.9%), 손기술이 2경기(7.7%), 발기술이 3경기(11.5%), 허리기술이 6기(23.1%), 기타가 8경기(30.8%)로 나타났다.

체급간에 사용하는 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기술의 교차분석

(1) 초등부

<표 7>은 2001년 체급별 초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75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4경기(18.7%), 손기술이 7경기(9.3%), 발기술이 21경기(28.0%), 허리기술이 14경기(18.7%), 기타가 19경기(25.3%)로 나타났다.

표 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4	4	9	3	10	30
	%	13.3	13.3	30.0	10.0	33.3	100.0
중(中)량급	빈도	6.00	2.00	9.00	7.00	6.00	30.00
	%	20.0	6.7	30.0	23.3	20.0	100.0
중(重)량급	빈도	4.0	1.0	3.0	4.0	3.0	15.0
	%	26.7	6.7	20.0	26.7	20.0	100.0
계	빈도	14	7	21	14	19	75
	%	18.7	9.3	28.0	18.7	25.3	100.0
χ^2		5.620					
유의값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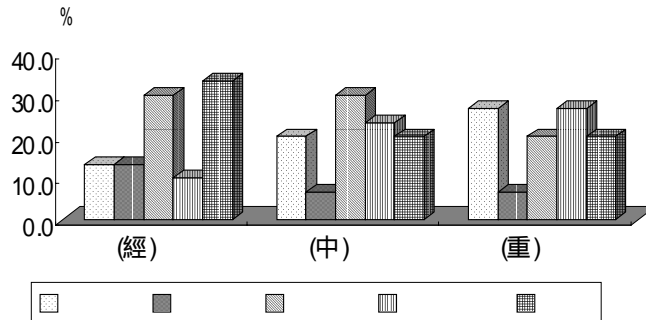


그림 6.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14경기(18.7%), 조르기가 없었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4경기(5.3%), 들어메치기가 1경기(1.3%), 되치기가 2경기(2.7%), 빗당겨치기와 어깨로메치기와 다리잡아메치기는 없었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8경기(10.7%), 허벅다리걸기가 7경기(9.3%), 안다리가 2경기(2.7%), 발뒤축이 1경기(1.3%), 모두걸기와 떡걸이는 없었으며, 안뒤축걸기가 3경기(4.0%)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0경기(13.3%), 감아치기가 1경기(1.3%), 허리채기가 1경기(1.3%), 허리뒤기가 2경기(2.7%), 기타가 19경기(25.3%)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4경기(13.3%), 손기술이 4경기(13.3%), 발기술이 9경기(30.0%), 허리기술이 3경기(10.0%), 기타가 10경기(33.3%)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6경기(20.0%), 손기술이 2경기(6.7%), 발기술이 9경기(30.0%), 허리기술이 7경기(23.3%), 기타가 6경기(20.0%)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4경기(26.7%), 손기술이 1경기(6.7%), 발기술이 3경기(20.0%), 허리기술이 4경기(26.7%), 기타가 3경기(20.00%)로 나타났다.

(2) 남자중등부

<표 8>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 다. 총 127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29경기(22.8%), 손기술이 20경기

(15.8%), 발기술이 38경기(29.9%), 허리기술이 13경기(10.24%), 기타가 27경기(21.26%)로 나타났다.

표 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5	6	16	1	12	40
	%	12.5	15.0	40.0	2.5	30.0	100.0
중(中)량급	빈도	8	6	17	5	7	43
	%	18.6	14.0	39.5	11.6	16.3	100.0
중(重)량급	빈도	16	8	5	7	8	44
	%	36.4	18.2	11.4	15.9	18.2	100.0
계	빈도	29	20	38	13	27	127
	%	22.8	15.7	29.9	10.2	21.3	100.0
χ^2							5.620
유의값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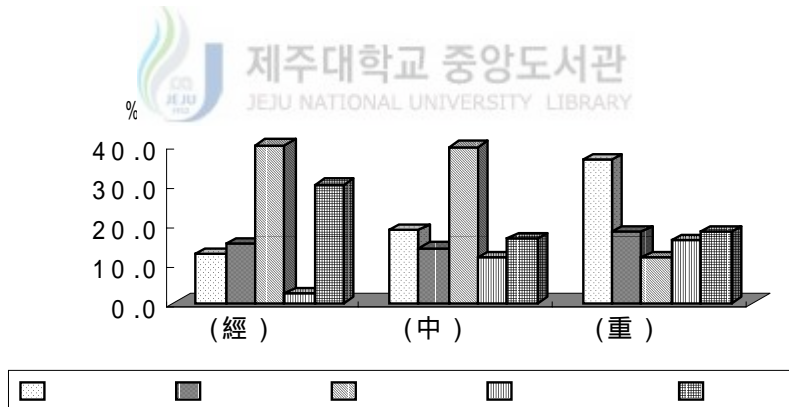


그림 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26경기(20.5%), 조르기가 3경기(2.4%)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12경기(9.4%), 들어메치기가 1경기(.8%), 되치기가 4경기(3.1%), 빗당겨치기가 1경기(.8%), 어깨로메치기가 1경기(.8%), 다리 잡아메치기가 1경기(.8%)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7경기(5.5%), 허벅다리걸기가 11경기(8.7%), 안다리가 3경기(2.4%), 발뒤축이 12경기(9.4%), 모두걸

기가 1경기(.8%), 떡걸이는 없었으며, 안뒤축걸기가 4경기(3.1%)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0경기(7.9%), 감아치기가 1경기(.8%), 허리채기가 2경기(1.6%),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27경기(21.3%)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5경기(12.5%), 손기술이 6경기(15.0%), 발기술이 16경기(40.0%), 허리기술이 1경기(2.5%), 기타가 12경기(30.0%)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8경기(18.6%), 손기술이 6경기(14.0%), 발기술이 17경기(39.5%), 허리기술이 5경기(11.6%), 기타가 7경기(16.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16경기(36.4%), 손기술이 8경기(18.2%), 발기술이 5경기(11.4%), 허리기술이 7경기(15.9%), 기타가 8경기(18.0%)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표 9〉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118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27경기(22.9%), 손기술이 19경기(16.1%), 발기술이 38경기(32.2%), 허리기술이 14경기(11.9%), 기타가 20경기(16.9%)로 나타났다.

표 9.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10	8	13	6	8	45
	%	22.2	17.8	28.9	13.3	17.8	100.0
중(中)량급	빈도	9	8	19	5	3	44
	%	20.5	18.2	43.2	11.4	6.8	100.0
중(重)량급	빈도	8	3	6	3	9	29
	%	27.6	10.3	20.7	10.3	31.0	100.0
계	빈도	27	19	38	14	20	118
	%	22.9	16.1	32.2	11.9	16.9	100.0
χ^2		10.415					
유의값		.0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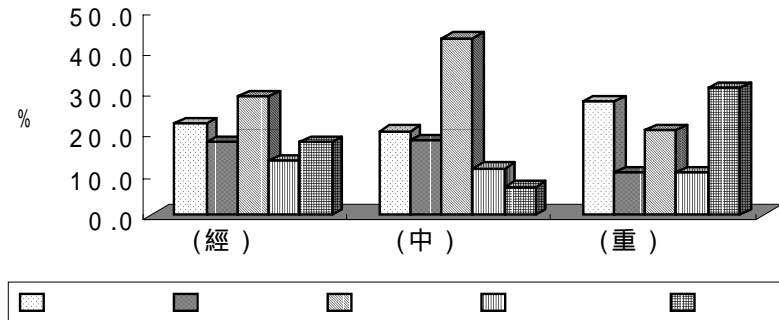


그림 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26경기(22.0%), 조르기가 1경기(8%)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5경기(4.2%), 들어메치기가 7경기(5.9%), 되치기가 3경기(2.5%), 빗당겨치기가 2경기(1.7%), 어깨로메치기가 1경기(8%), 다리잡아메치기가 1경기(8%)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6경기(5.1%), 허벅다리걸기가 16경기(13.6%), 안다리가 4경기(3.4%), 발뒤축이 6경기(5.1%), 모두 걸기가 3경기(2.5%), 떡걸이가 1경기(8%), 안뒤축걸기가 2경기(1.7%)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2경기(10.2%), 감아치기가 없었으며, 허리채기가 2경기(1.7%),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20경기(16.9%)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10경기(22.2%), 손기술이 8경기(17.8%), 발기술이 13경기(28.9%), 허리기술이 6경기(13.3%), 기타가 8경기(17.8%)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9경기(20.5%), 손기술이 8경기(18.2%), 발기술이 19경기(43.2%), 허리기술이 5경기(11.4%), 기타가 3경기(6.82%)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8경기(27.6%), 손기술이 3경기(10.34%), 발기술이 6경기(20.7%), 허리기술이 3경기(10.3%), 기타가 9경기(31.0%)로 나타났다.

3) 제31회 전국소년체전 학력에 따른 체급의 기술분석

(1) 초등부

〈표 10〉은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73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9경기(12.3%), 손기술이 13경기(17.8%), 발기술이 18경기(24.7%), 허리기술이 12경기(16.4%), 기타가 21경기(28.8%)로 나타났다.

표 1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4	3	8	4	10	29
	%	13.8	10.3	27.6	13.8	34.5	100.0
중(中)량급	빈도	2	9	8	5	6	30
	%	6.7	30.0	26.7	16.7	20.0	100.0
중(重)량급	빈도	3	1	2	3	5	14
	%	21.4	7.1	14.3	21.4	35.7	100.0
계	빈도	9	13	18	12	21	73
	%	12.3	17.8	24.7	16.4	28.8	100.0
χ^2							5.620
유의값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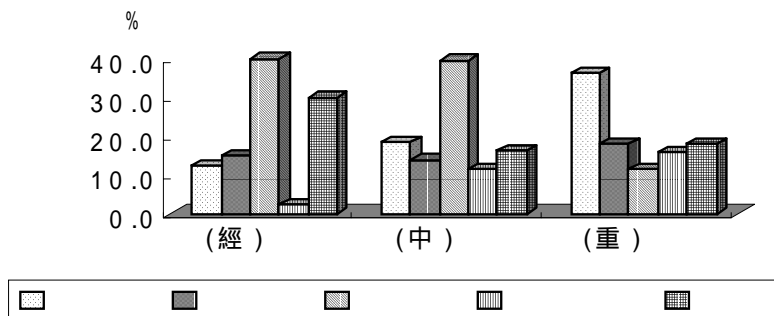


그림 9.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사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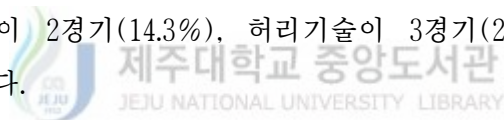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9경기(12.3%), 조르기가 없었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4경기(5.5%), 들어메치기가 1경기(1.4%), 되치기가 6경기(8.2%), 빗당겨치기가 1경기(1.4%), 어깨로메치기가 없었으며, 다리잡아메치기가 1경기(1.4%)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4경기(5.5%), 허벅다리걸기가 6경기(8.2%), 안다리가 3경기(4.1%), 발뒤축과 모두걸기는 없었으며, 떡걸이는 1경기(1.4%), 안뒤축걸기가 4경기(5.5%)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1경기(15.1%), 감아치기는 없었으며, 허리채기가 1경기(1.4%),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21경기(28.8%)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4경기(13.8%), 손기술이 3경기(10.3%), 발기술이 8경기(27.6%), 허리기술이 4경기(13.8%), 기타가 10경기(34.5%)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2경기(6.7%), 손기술이 9경기(30.0%), 발기술이 8경기(26.7%), 허리기술이 5경기(16.67%), 기타가 6경기(20.0%)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3경기(21.4%), 손기술이 1경기(7.1%), 발기술이 2경기(14.3%), 허리기술이 3경기(21.4%), 기타가 5경기(35.7%)로 나타났다.



(2) 남자중등부

〈표 11〉은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128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9경기(14.8%), 손기술이 15경기(11.7%), 발기술이 38경기(29.7%), 허리기술이 17경기(13.3%), 기타가 39경기(30.5%)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19경기(14.8%), 조르기는 없었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12경기(9.4%), 들어메치기는 없었으며, 되치기가 3경기(2.3%), 빗당겨치기가와 어깨로메치기와 다리잡아메치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9경기(7.0%), 허벅다리걸기가 12경기(9.4%), 안다리가 6경기(4.7%), 발뒤축이 2경기(1.6%), 모두걸기는 없었으며, 떡걸이는 8경기(6.3%), 안뒤축걸기가 1경기(0.8%)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6경기(12.5%), 감아치기는 없었으며, 허리채기가 1경기(0.8%), 허리튀기는 없었

며, 기타가 39경기(30.5%)로 나타났다.

표 1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5	9	10	5	12	41
	%	12.2	22.0	24.4	12.2	29.3	100.0
중(中)량급	빈도	4	3	17	8	12	44
	%	9.1	6.8	38.6	18.2	27.3	100.0
중(重)량급	빈도	10	3	11	4	15	43
	%	23.3	7.0	25.6	9.3	34.9	100.0
계	빈도	19	15	38	17	39	128
	%	14.8	11.7	29.7	13.3	30.5	100.0
χ^2		12.220					
유의값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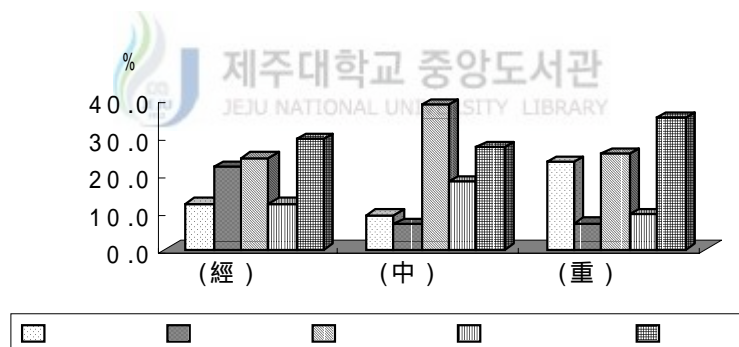


그림 1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사용기술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5경기(12.2%), 손기술이 9경기(22.0%), 발기술이 10경기(24.4%), 허리기술이 5경기(12.2%), 기타가 12경기(29.3%)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4경기(9.1%), 손기술이 3경기(6.8%), 발기술이 17경기(38.6%), 허리기술이 8경기(18.2%), 기타가 12경기(27.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10경기(23.3%), 손

기술이 3경기(7.0%), 발기술이 11경기(25.6%), 허리기술이 4경기(9.3%), 기타가 15경기(34.9%)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표 12〉는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에서 사용한 기술의 내용이다. 총 117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13경기(11.1%), 손기술이 26경기(22.2%), 발기술이 33경기(28.2%), 허리기술이 15경기(12.8%), 기타가 30경기(25.6%)로 나타났다.

표 12.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기술의 교차분석

		기술					전체
		굳히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기타	
경(輕)량급	빈도	3	18	10	1	11	43
	%	7.0	41.9	23.3	2.3	25.6	100.0
중(中)량급	빈도	5	7	13	6	14	45
	%	11.1	15.6	28.9	13.3	31.1	100.0
중(重)량급	빈도	5	1	10	8	5	29
	%	17.2	3.4	34.5	27.6	17.2	100.0
계	빈도	13	26	33	15	30	117
	%	11.1	22.2	28.2	12.8	25.6	100.0
χ^2		25.349					
유의값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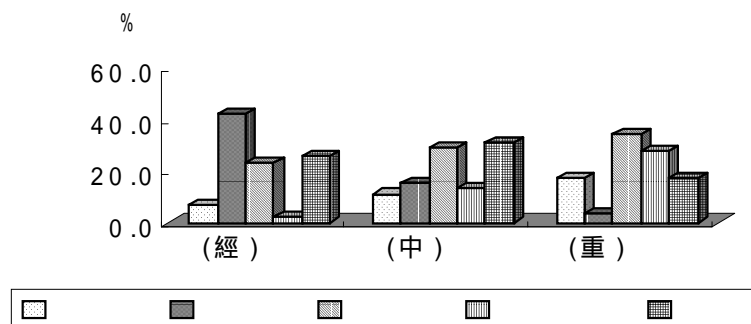


그림 1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사용기술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13경기(11.1%), 조르기가 없었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12경기(10.3%), 들어메치기가 2경기(1.7%), 되치기가 6경기(5.1%), 빗당겨치기가 1경기(.9%), 어깨로메치기가 1경기(.9%), 다리잡아메치기가 4경기(3.4%)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밧다리가 8경기(6.8%), 허벅다리걸기가 10경기(8.5%), 안다리가 4경기(3.4%), 발뒤축이 2경기(1.7%), 모두걸기가 2경기(1.7%), 떡걸이가 6경기(5.1%), 안뒤축걸기가 1경기(.9%)로 나타났다.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15경기(12.8%), 감아치기와 허리채기와 허리튀기는 없었으며, 기타가 30경기(25.6%)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3경기(7.0%), 손기술이 18경기(41.9%), 발기술이 10경기(23.3%), 허리기술이 1경기(2.3%), 기타가 11경기(25.6%)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 5경기(11.1%), 손기술이 7경기(15.6%), 발기술이 13경기(28.9%), 허리기술이 6경기(13.3%), 기타가 14경기(31.1%)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경기에서 사용된 기술로는 굳히기가 5경기(17.2%), 손기술이 1경기(3.4%), 발기술이 10경기(34.5%), 허리기술이 8경기(27.6%), 기타가 5경기(17.2%)로 나타났다.

체급간에 사용하는 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전체 득점분석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남자중등부, 여자중등부에 참가한 선수들의 총 962경기를 대상으로 한 전체득점을 보면 <그림 12>와 같다.

총 사용된 득점을 보면 한판이 609경기(63.3%), 유효가 112경기(11.6%), 절반이 68경기(7.1%), 기타가 66경기(6.9%), 효과가 54경기(5.6%), 판정이 54경기(5.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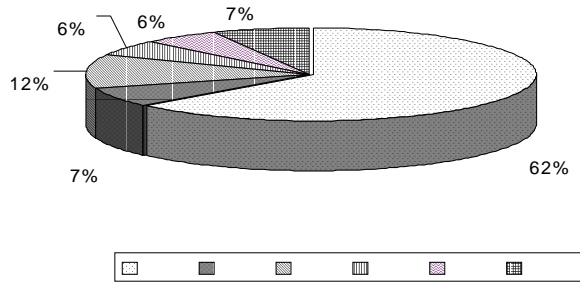


그림 12. 전체 사용득점 분석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전체득점 318경기 중 한판이 186경기(58.5%), 절반이 26경기(8.2%), 유효가 40경기(12.6%), 효과가 18경기(5.7%), 판정이 13경기(4.1%), 기타가 35경기(11.0%)로 나타났으며,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전체득점 320경기 중 한판이 208경기(65.0%), 절반이 24경기(7.5%), 유효가 31경기(9.7%), 효과가 11경기(3.4%), 판정이 24경기(7.5%), 기타가 22경기(6.9%)로 나타났으며,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전체득점 318경기 중 한판이 211경기(67.0%), 절반이 21경기(6.6%), 유효가 40경기(12.6%), 효과가 26경기(8.2%), 판정이 14경기(4.4%), 기타가 4경기(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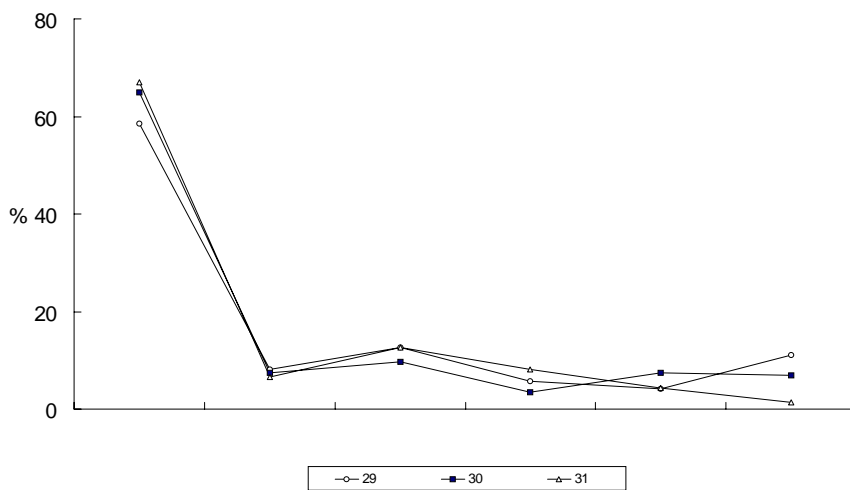


그림 13. 사용득점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1) 제 29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1) 초등부

초등학교 총 73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9경기(53.4%), 절반이 9경기(12.3%), 유효가 8경기(11.0%), 효과가 5경기(6.8%), 판정이 4경기(5.5%), 기타가 8경기(11.0%)로 나타났다.

표 13.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13	3	4	4	4	2	30
	%	43.3	10.0	13.3	13.3	13.3	6.7	100.0
중(中)량급	빈도	20	2	3	1		3	29
	%	69.0	6.9	10.3	3.4		21.4	100.0
중(重)량급	빈도	6	4	1			3	14
	%	42.9	28.6	7.1			21.4	100.0
계	빈도	39	9	8	5	4	8	73
	%	53.4	12.3	11.0	6.8	5.5	11.0	100.0
χ^2								17.286
유의값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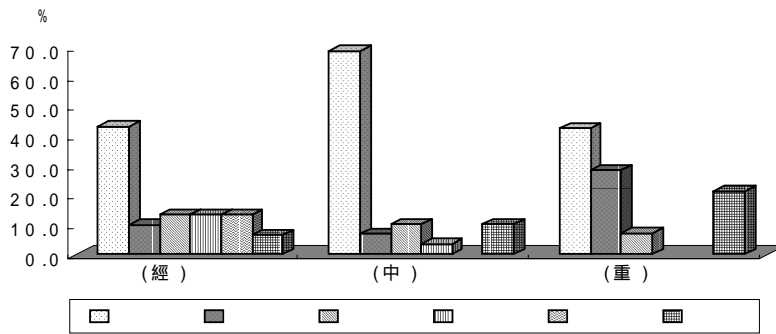


그림 1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경(輕)량급 총 351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3경기(43.3%), 절반이 3경기(10.0%),

유효가 4경기(13.3%), 효과가 4경기(13.3%), 판정이 4경기(13.3%), 기타가 2경기(6.7%)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29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0경기(69.0%), 절반이 2경기(6.9%), 유효가 3경기(10.3%), 효과가 1경기(3.4%), 판정이 없었으며, 기타가 3경기(21.4%)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1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6경기(42.9%), 절반이 4경기(28.6%), 유효가 1경기(7.1%), 효과와 판정은 없었으며, 기타가 3경기(21.4%)로 나타났다.

(2) 남자중등부

표 14.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19	6	5	5	1	4	40
	%	47.5	15.0	12.5	12.5	2.5	10.0	100.0
중(中)량급	빈도	24	2	9	2	2	6	45
	%	53.3	4.4	20.0	4.4	4.4	13.3	100.0
중(重)량급	빈도	26	3	3	3	3	7	45
	%	57.8	6.7	6.7	6.7	6.7	15.6	100.0
계	빈도	69	11	17	10	6	17	130
	%	53.1	8.5	13.1	7.7	4.6	13.1	100.0
χ^2		9.731						
유의값		.0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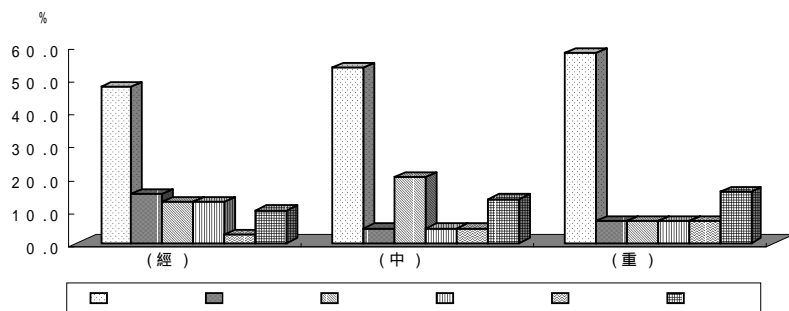


그림 1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남자중학교 총 13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69경기(53.1%), 절반이 11경기(8.5%), 유효가 17경기(13.1%), 효과가 10경기(7.7%), 판정이 6경기(4.6%), 기타가 17경기(13.1%)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총 4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9경기(47.5%), 절반이 6경기(15.0%), 유효가 5경기(12.5%), 효과가 5경기(12.5%), 판정이 1경기(2.5%), 기타가 4경기(10.0%)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4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4경기(53.3%), 절반이 2경기(4.4%), 유효가 9경기(20.0%), 효과가 2경기(4.4%), 판정이 2경기(4.4%), 기타가 6경기(13.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4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6경기(57.8%), 절반이 3경기(6.7%), 유효가 3경기(6.7%), 효과가 3경기(6.7%), 판정이 3경기(6.7%), 기타가 7경기(15.6%)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여자중학교 총 11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78경기(67.8%), 절반이 6경기(5.2%), 유효가 15경기(13.0%), 효과가 3경기(2.6%), 판정이 3경기(2.6%), 기타가 10경기(8.7%)로 나타났다.

표 15.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27	1	10	1	2	4	45
	%	60.0	2.2	22.2	2.2	4.4	8.9	100.0
중(中)량급	빈도	33	3	4	1	1	2	44
	%	75.0	6.8	9.1	2.3	2.3	4.5	100.0
중(重)량급	빈도	18	2	1	1		4	26
	%	69.2	7.7	3.8	3.8		15.4	100.0
계	빈도	78	6	15	3	3	10	115
	%	67.8	5.2	13.0	2.6	2.6	8.7	100.0
χ^2		10.850						
유의값		.0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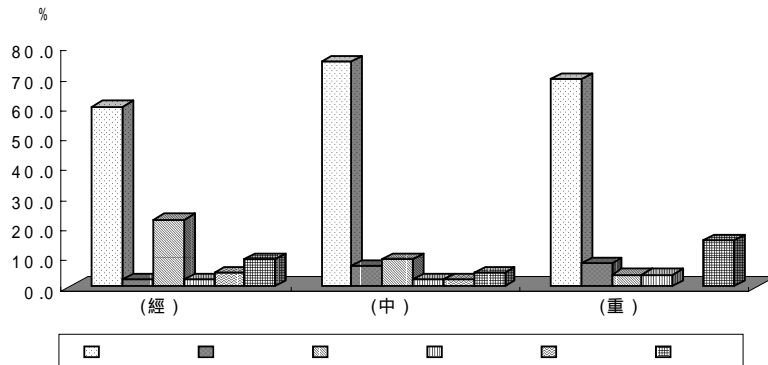


그림 16.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경(輕)량급 총 4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7경기(60.0%), 절반이 1경기(2.2%), 유효가 10경기(22.2%), 효과가 1경기(2.2%), 판정이 2경기(4.4%), 기타가 4경기(8.9%)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4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3경기(75.0%), 절반이 3경기(6.8%), 유효가 4경기(9.1%), 효과가 1경기(2.3%), 판정이 1경기(2.3%), 기타가 2경기(4.5%)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26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8경기(69.2%), 절반이 2경기(7.7%), 유효가 1경기(3.8%), 효과가 1경기(3.8%), 판정은 없었으며, 기타가 4경기(15.4%)로 나타났다.

2) 제 30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1) 초등부

초등학교 총 7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44경기(58.7%), 절반이 10경기(13.3%), 유효가 6경기(8.0%), 효과가 3경기(4.0%), 판정이 6경기(8.0%), 기타가 6경기(8.0%)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총 3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5경기(50.0%), 절반이 5경기(16.7%), 유효가 2경기(6.7%), 효과가 없었으며, 판정이 4경기(13.3%), 기타가 4경기(13.3%)로 나타났다.

표 16.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15	5	2		4	4	30
	%	50.0	16.7	6.7		13.3	13.3	100.0
중(中)량급	빈도	19	5	1	3	1	1	30
	%	63.3	16.7	3.3	10.0	3.3	3.3	100.0
중(重)량급	빈도	10		3		1	1	15
	%	66.7		20.0		6.7	6.7	100.0
계	빈도	44	10	6	3	6	6	75
	%	58.7	13.3	8.0	4.0	8.0	8.0	100.0
χ^2		15.076						
유의값		.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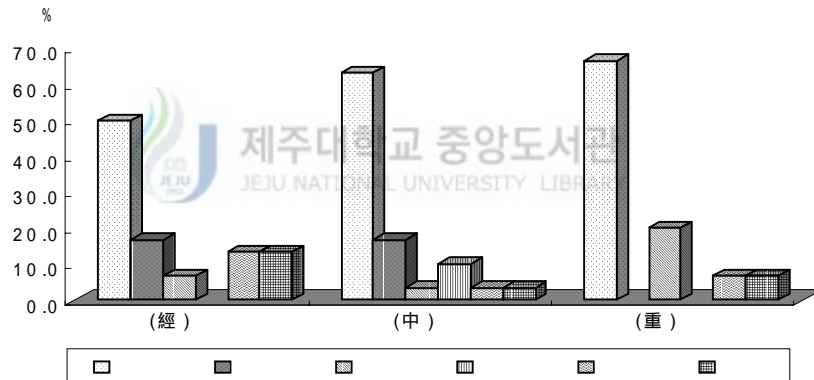


그림 1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중(中)량급 총 3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9경기(63.3%), 절반이 5경기(16.7%), 유효가 1경기(3.3%), 효과가 3경기(10.0%), 판정이 1경기(3.3%), 기타가 1경기(3.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1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0경기(66.7%), 절반이 없었으며, 유효가 3경기(20.0%), 효과는 없었으며, 판정은 1경기(6.7%), 기타가 1경기(6.7%)로 나타났다.

(2) 남자중등부

남자중학교 총 127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84경기(66.1%), 절반이 3경기(2.4%), 유효가 13경기(10.2%), 효과가 4경기(3.1%), 판정이 13경기(10.2%), 기타가 10경기(7.9%)로 나타났다.

표 17.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24	1	2	4	5	4	40
	%	60.0	2.5	5.0	10.0	12.5	10.0	100.0
중(中)량급	빈도	28	1	8		2	4	43
	%	65.1	2.3	18.6		4.7	9.3	100.0
중(重)량급	빈도	32	1	3		6	2	44
	%	72.7	2.3	6.8		13.6	4.5	100.0
계	빈도	84	3	13	4	13	10	127
	%	66.1	2.4	10.2	3.1	10.2	7.9	100.0
χ^2		16.712						
유의값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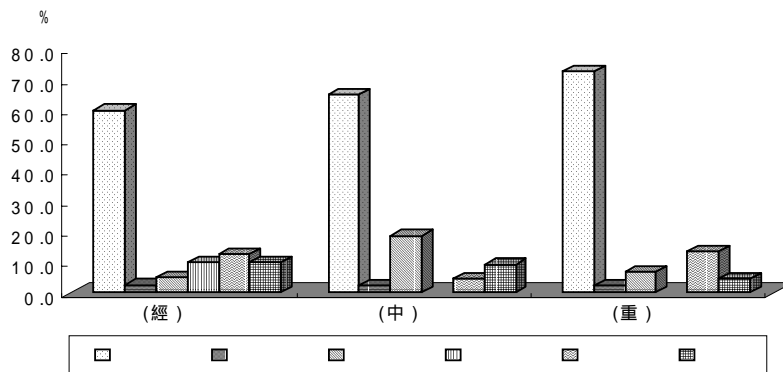


그림 1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경(輕)량급 총 4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4경기(60.0%), 절반이 1경기(2.5%), 유효가 2경기(5.0%), 효과가 4경기(10.0%), 판정이 5경기(12.5%), 기타가 4경기

(10.0%)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43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8경기(65.1%), 절반이 1경기(2.3%), 유효가 8경기(18.6%), 효과는 없었으며, 판정이 2경기(4.7%), 기타가 4경기(9.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4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2경기(72.7%), 절반이 1경기(2.3%), 유효가 3경기(6.8), 효과는 없었으며, 판정은 6경기(13.6%), 기타가 2경기(4.5%)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여자중학교 총 118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80경기(67.8%), 절반이 11경기(9.3%), 유효가 12경기(10.2%), 효과가 4경기(3.4%), 판정이 5경기(4.2%), 기타가 6경기(5.1%)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총 4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0경기(66.7%), 절반이 5경기(11.1%), 유효가 5경기(11.1%), 효과가 2경기(4.4%), 판정이 3경기(6.7%),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4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1경기(70.5%), 절반이 5경기(11.4%), 유효가 4경기(9.1%), 효과가 1경기(2.3%), 판정이 1경기(2.3%), 기타가 2경기(4.5%)로 나타났다.

표 18.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기타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경(輕)량급	빈도	30	5	5	2	3		45
	%	66.7	11.1	11.1	4.4	6.7		100.0
중(中)량급	빈도	31	5	4	1	1	2	44
	%	70.5	11.4	9.1	2.3	2.3	4.5	100.0
중(重)량급	빈도	19	1	3	1	1	4	29
	%	65.5	3.4	10.3	3.4	3.4	13.8	100.0
계	빈도	80	11	12	4	5	6	118
	%	67.8	9.3	10.2	3.4	4.2	5.1	100.0
χ^2								9.610
유의값								.0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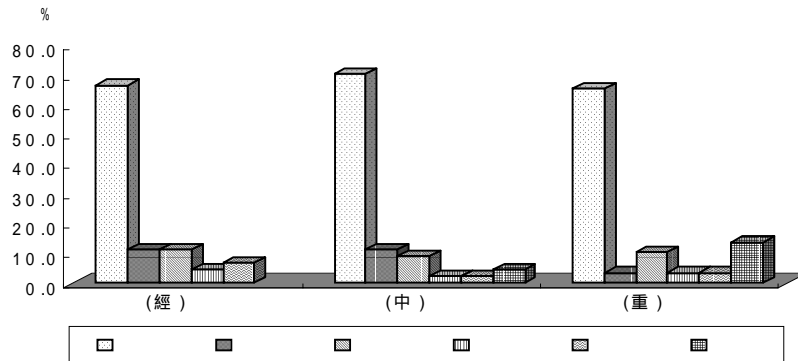


그림 19.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중(重)량급 총 29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9경기(65.5%), 절반이 1경기(3.4%), 유효가 3경기(10.3%), 효과가 1경기(3.4%), 판정이 1경기(3.4%), 기타가 4경기(13.8%)로 나타났다.

3) 제 31회 전국소년체전 집단별 체급과 득점의 교차분석

(1) 초등부

초등학교 총 73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50경기(68.5%), 절반이 3경기(4.1%), 유효가 7경기(9.6%), 효과가 7경기(9.6%), 판정이 4경기(5.5%), 기타가 2경기(2.7%)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총 29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6경기(55.2%), 절반이 2경기(6.9%), 유효가 3경기(10.3%), 효과가 4경기(13.8%), 판정이 3경기(10.3%), 기타가 1경기(3.4%)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30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2경기(73.3%), 절반이 1경기(3.3%), 유효가 3경기(10.0%), 효과가 2경기(6.7%), 판정이 1경기(3.3%), 기타가 1경기(3.3%)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1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12경기(85.7%), 절반이 없었으며, 유효가 1경기(7.1%), 효과가 1경기(7.1%), 판정과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16	2	3	4	3	1	29
	%	55.2	6.9	10.3	13.8	10.3	3.4	100.0
중(中)량급	빈도	22	1	3	2	1	1	30
	%	73.3	3.3	10.0	6.7	3.3	3.3	100.0
중(重)량급	빈도	12		1	1			14
	%	85.7		7.1	7.1			100.0
계	빈도	50	3	7	7	4	2	73
	%	68.5	4.1	9.6	9.6	5.5	2.7	100.0
χ^2								6.374
유의값								.0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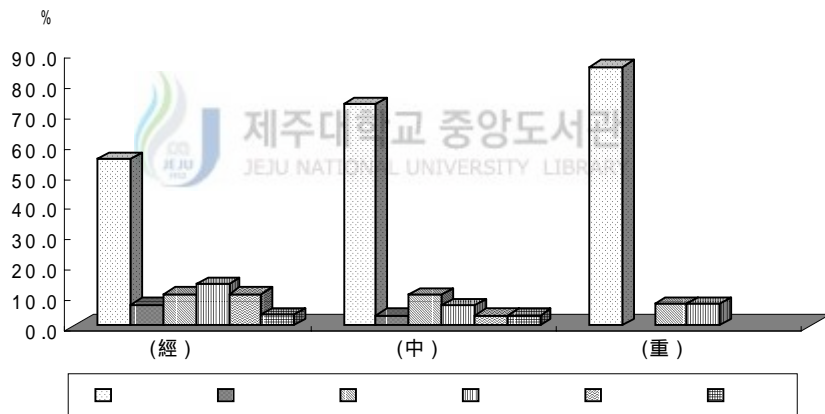


그림 2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초등부의 득점

(2) 남자중등부

남자중학교 총 128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87경기(68.0%), 절반이 7경기(5.5%), 유효가 21경기(16.4%), 효과가 6경기(4.7%), 판정이 5경기(3.9%), 기타가 2경기(1.6%)로 나타났다.

경(輕)량급 총 41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7경기(65.9%), 절반이 2경기(4.9%), 유효가 7경기(17.1%), 효과가 2경기(4.9%), 판정이 1경기(2.4%)로 나타났다.

표 20.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기타	
경(輕)량급	빈도	27	2	7	2	2	1	41
	%	65.9	4.9	17.1	4.9	4.9	2.4	100.0
중(中)량급	빈도	30	3	10		1		44
	%	68.2	6.8	22.7		2.3		100.0
중(重)량급	빈도	30	2	4	4	2	1	43
	%	69.8	4.7	9.3	9.3	4.7	2.3	100.0
계	빈도	87	7	21	6	5	2	128
	%	68.0	5.5	16.4	4.7	3.9	1.6	100.0
χ^2								8.208
유의값								.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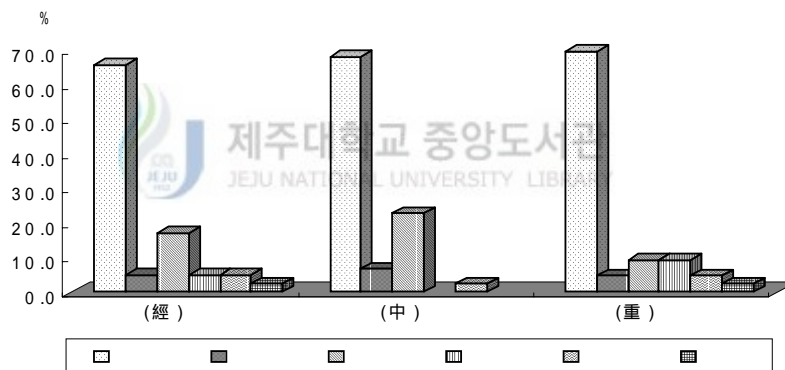


그림 2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남자중등부의 득점

중(中)량급 총 44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0경기(68.2%), 절반이 3경기(6.8%), 유효가 10경기(22.7%), 효과가 없었으며, 판정이 1경기(2.3%),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43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0경기(69.8%), 절반이 2경기(4.7%), 유효가 4경기(9.3%), 효과가 4경기(9.3%), 판정이 2경기(4.7%), 기타가 1경기(2.3%)로 나타났다.

(3) 여자중등부

여자중학교 총 117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76경기(65.0%), 절반이 11경기(9.4%), 유효가 12경기(10.3%), 효과가 13경기(11.1%), 판정이 5경기(4.3%),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 득점 교차분석

		득점					전체
		한판	절반	유효	효과	판정	
경(輕)량급	빈도	24	6	6	6	1	43
	%	55.8	14.0	14.0	14.0	2.3	100.0
중(中)량급	빈도	32	4	4	4	1	45
	%	71.1	8.9	8.9	8.9	2.2	100.0
중(重)량급	빈도	20	1	2	3	3	29
	%	69.0	3.4	6.9	10.3	10.3	100.0
계	빈도	76	11	12	13	5	117
	%	65.0	9.4	10.3	11.1	4.3	100.0
χ^2		7.769					
유의값		.0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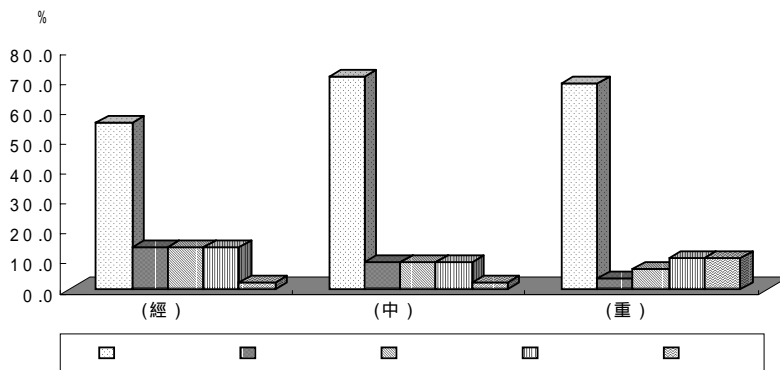


그림 22.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체급별 여자중등부의 득점

경(輕)량급 총 43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4경기(55.8%), 절반이 6경기(14.0%), 유효가 6경기(14.0%), 효과가 6경기(14.0%), 판정이 1경기(2.3%)로 나타났다.

중(中)량급 총 45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32경기(71.1%), 절반이 4경기(8.9%), 유효가 4경기(8.9%), 효과가 4경기(8.9%), 판정이 1경기(2.2%)로 나타났다.

중(重)량급 총 29경기 중 득점은 한판이 20경기(69.0%), 절반이 1경기(3.4%), 유효가 2경기(6.9%), 효과가 3경기(10.3%), 판정이 3경기(10.3%)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유도를 대상으로 제21회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를 중심으로 체급별 사용기술에 관한 연구를 한 박순진·김도준·김성섭·조은복(2001), 1999년 국가대표 1차 선발 평가전, 제 10회 성곡컵 국제남자유도대회(유경훈, 2001) 등 분석한 결과는 많지만 자라나는 꿈나무 유도선수들에 대한 자료로는 초등학교 남자 유도 경기의 사용 기술 빈도 분석(정종열, 1994)외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남자중등부, 여자 중등부에 참가한 선수들의 총 956경기를 년도별, 학교급간별로 사용기술과 사용특점을 분석하였으며, 자라나는 꿈나무 유도선수의 훈련지도에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제시하고 경기력 향상과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전체사용기술 956경기 중 메치기기술이 532경기(55.7%)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발기술이 254경기(26.6%),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 굳히기가 196경기(20.5%), 손기술이 162경기(16.9%), 메치기의 허리기술이 116경기(12.1%)순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로는 굳히기의 누르기가 189경기(19.6%), 조르기가 7경기(.7%)이다. 메치기의 손기술인 엮어치기가 89경기(9.3%), 들어메치기가 17경기(1.8%), 되치기가 36경기(3.8%), 빗당겨치기가 7경기(.7%), 어깨로메치기가 4경기(.4%), 다리잡아메치기가 9경기(.9%)이며, 발기술의 밧다리가 63경기(6.6%), 허벅다리결기가 76경기(7.9%), 안다리가 37경기(3.9%), 발뒤축이 23경기(2.4%), 모두결기가 8경기(.8%), 떡결이가 25경기(2.6%), 안뒤축결기가 22경기(2.3%)이며, 허리기술의 허리후리기가 97경기(10.1%), 감아치기가 7경기(.7%), 허리채기가 10경기(1.0%), 허리튀기가 2경기(.2%)이며,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로 나타났다.

전체특점분석결과 2000년 남자중등부, 여자중등부, 2001년 남자초등부, 여자중

등부, 2002년 여자중등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2000년 남자중등부에서는 총 130경기 중 한판이 69경기(53.1%), 절반이 11경기(8.5%), 유효가 17경기(13.1%), 효과가 10경기(7.7%), 판정이 6경기(4.6%), 기타가 17경기(13.1%)로 나타났다, 여자중등부에서는 총 115경기 중 한판이 78경기(67.8%), 절반이 6경기(5.2%), 유효가 15경기(13.0%), 효과가 3경기(2.6%), 판정이 3경기(2.6%), 기타가 10경기(8.7%)로 나타났다.

2001년 남자초등부에서는 총 75경기 중 한판이 44경기(58.7%), 절반이 10경기(13.3%), 유효가 6경기(8.0%), 효과가 3경기(4.0%), 판정이 6경기(8.0%), 기타가 6경기(8.0%)로 나타났다, 여자중등부에서는 총 118경기 중 한판이 80경기(67.8%), 절반이 11경기(9.3%), 유효가 12경기(10.2%), 효과가 4경기(3.4%), 판정이 5경기(4.2%), 기타가 6경기(5.1%)로 나타났다.

2002년 여자중등부에서는 총 117경기 중 한판이 76경기(65.0%), 절반이 11경기(9.4%), 유효가 12경기(10.3%), 효과가 13경기(11.1%), 판정이 5경기(4.3%),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판이 625경기(65.4%), 유효가 111경기(11.6%), 절반이 71경기(7.4%), 기타가 61경기(6.4%), 효과가 55경기(5.8%), 판정이 51경기(5.3%) 순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남자중등부, 여자 중등부에 참가한 선수들의 총 956경기를 대상으로 한 전체 사용기술과 득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체사용기술 956경기 중 메치기기술이 532경기(55.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발기술이 254경기(26.6%), 기타(기권, 반칙, 실격)가 228경기(23.8%), 굳히기가 196경기(20.5%), 메치기의 손기술이 162경기(16.9%), 메치기의 허리기술이 116경기(12.1%)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사용기술에서는 2000년 대회에서는 굳히기가 85경기(26.7%), 기타(기권, 반칙, 실격) 72경기(22.6%), 발기술 68경기(21.4%)순으로 2001년에는 발기술이 97경기(30.3%), 굳히기 70경기(21.9%) 2001년에는 기타(기권, 반칙, 실격) 90경기(28.3%), 발기술 89경기(28.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득점을 분석한 결과 한판이 609경기(63.3%), 유효가 112경기(11.6%), 질반이 68경기(7.1%), 기타가 66경기(6.9%), 효과가 54경기(5.6%), 판정이 54경기(5.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도별 득점에 대한 분포는 한판득점이 2000년 대회에서는 186경기(58.5%), 유효 40경기(12.6%), 2001년에는 208경기(65.0%), 유효 31경기(9.7%), 2002년 213경기(67.0%), 유효 40경기(12.6%)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3개년간의 대회를 종합해 볼 때 출전선수 공통적으로 승부에 사용된 기술과 득점에서는 경량급에서 발기술, 손기술 순으로 중(中), 중(重)량급에서는 허리기술과 누르기 순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2. 제언

위의 결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기술과 굳히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대에 따른 다양한 공격기술을 연구하여야 되겠다.

2) 경기력의 주요요인인 체력, 기술, 정신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충식(1978). 유도경기의 승패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생활과학연구(10). 21-30.
- 김관현(1999). 경쟁상태불안의 하위요소들이 유도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2).
- 김도준, 안병근(1991). 한국유도의 역사와 현황분석. 무도연구소지. 3(1). 체육과학연구소지. 10(1).
- 김승철, 하형주(1995). 유도선수들의 정신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6(2).
- 김정행 외 2인(1997). 무도론. 서울: 대한미디어.
- 김정행(1986). 유도개론. 용인: 대한유도대학출판부.
- 김정행, 김영환(1987). "유도" 스포츠시리즈 19. 서울: 동양문화사.
- 김종달 외 2인(1998). 유도의 기원에 관한 제학설.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9(1).
- 나현성(1975). 일제하 체육운동 강압성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10(1).
- 나현성(1976). 회갑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 체육회.
- 대한유도회(1997). 유도 제44호. 대한유도회.
- 박경호(1999). 유도경기장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의미. 대한무도학회지. 1(1).
- 안자산(1974). 조선무사영웅전. 서울: 정음사.
- 유경훈(2001). 유도 경기의 사용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교육대학원.
- 이제황(1976). 신유도. 서울: 수상계사.
- 이학래(1989). 한국 유도발달사. 서울: 보경문화사.
- 이학래(1990). 한국 근대체육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정종열(2000). 초등학교 남자 유도 경기의 사용 기술 빈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 최관용(2000). 정상급 여자 유도선수의 경기력 형성을 위한 상장단계별 지도행동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1).

- 최명수(2000). 유도선수들의 경쟁불안 감소 훈련 효과. 발육발달. 8(2).
- 최종삼, 최용배(1999). 무단통치기(1910-1919)의 한국유도경기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1).
- 최종삼, 최용배(2000). 문화통치기의 유도에 관한 고찰. 대한무도학회지. 2(1).
- 老松信一, 改新, 柔道百年, 日本東京部, 時事通信社, 1976.



[Abstract]

**An Analysis of Techniques and Scores of Judo Player in National
Junior Athletic Competition**

Kim Tae Gyun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ei-Hyoung

This research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which is based on all used techniques and gained scores through 956 matches of male elementary school class competition, male middle school class competition and female middle school class competition on 29th, 30th, 31st of National Junior Athletic competition

First, total used techniques are indicated through on 956 matches as follows.

Throw technique 532(55.7%)matches,it was the most used technique, and foot technique 254 (26.6%) matches, Others (give up, foul, disqualification) 228 (23.8%) matches, harden 196 (20.5%) matches, hand technique of throwing 162(16.9%) matches, sweeping hip throw technique of throwing 116 (12.1%)match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Second, per year of used techniques were indicated as follows.

In 2000 competition, harden 85 matches(26.7%), others (give up, foul, disqualification) 72 matches (22.6%), foot technique 68 matches (21.4%).

In 2001 competition, foot techniques 97 matches(30.3%), harden 70 matches (21.9%)

In 2002 competition, others (give up, foul, disqualification) 90 matches (28.3%), foot techniques 89 matches(28.0%)

Third, after analyzing of total scores are indicated as follows.

Ippon 609 matches(63.3%), Yuko 112 matches(11.6%), Waza-Ari 68 matches (7.1%), Others 66 matches(6.9%), Koka 54 matches(5.6%), Decision 54 matches (5.5%)

Fourth, per year of gained scores were indicated as follows.

In 2000 competition, Ippon 186 matches(58.5%), Yuko 40 matches(12.6%)

In 2001 competition, Ippon 208 matches(65.0%), Yuko 31 matches(9.7%)

In 2002 competition, Ippon 213 matches(67.0%), Yuko 40 matches(12.6%)

Lastly, after total analyzing of competition for the three consecutive years, the general used techniques and gained scores of players who were participated the competitions were indicated in order foot technique, hand techniques for light weight class and sweeping hip throw, osaekomi for heavy weight class.